

학사모 선수들 인고의 세월 이기고 '우뚝'

KBO리그 박세혁·윤명준·신본기·문승원 등 맹활약 2014년 이후 신인드래프트서 대졸 선수 감소 추세

나이 서른에 마침내 꽃을 피운 선수들이 2019년프로야구 KBO리그 시즌 초반 팬들의 시선을 끈다.

공수에서 양의지(NC 다이노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운 두산 베어스 주전 포수 박세혁(29), 박세혁과 호흡을 맞춰 두산 허리진에 안정감을 높인 우완 투수 윤명준(30), 타격 3위를 질주하는 롯데 자이언츠의 살림꾼 신본기(30), 10개 구단 최강의 5선발로 자리매김 한 우완 투수 문승원(30·SK 와이번스)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에게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대졸 선수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이 스물셋에 KBO리그에 입성해 기량을 꽃피우기까지 햇수는 7년, 시즌으로는 8시즌이 걸렸다.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돼 처음부터 발군의 실력을 뽐낸 이로는 나성범(30·NC)이 있다.

SK의 거포로 입지를 굳힌 한동민(30)과 2017년 SK에서 KIA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된 뒤 한국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누린 포수 김민식(30), 한화 이글스 외야수 양성우(30)도 올해 입단 동기들보다 먼저 이름을 알린 2012년 대졸 지명 선수들이다.

상무와 경찰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친 대졸 선수들은 경력으로나 나이로나 선수 인생의 절정기를 향해 막 첫발을 내디뎠다.

박세혁은 김태형 두산 감독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다. 타율 0.303에 타점 15개를 올린 준수한 타격도 좋고 투수들과 팀 평균자책점 2위(2.97)를 합작한 수비 실력은 더욱 좋다.

작년까지 양의지의 백업이었지만, 인젠가 주전 안방마님으로 도약하고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진가를 올해 제대로 입증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박세혁과 배터리를 이

룬 윤명준과 문승원도 소속팀의 보배로 성장했다.

윤명준은 23일 현재 13경기에 등판해 1승 4홀드, 평균자책점 1.50의 성적을 냈다.

지난해 선발투수로 한 단계 올라선 문승원은 올시즌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2.77로 다른 팀 1~2선발에 버금가는 결과를 수확했다.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0.85), 피안타율(0.183) 모두 양호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롯데의 내야수 신본기는 타율 0.365를 쳐 각종타격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에 도전한다.

올 시즌엔 유격수로 고정 출전해 수비에서도 안정을 찾았다. 넘버하지 않은 연봉에도 오랫동안 기부를 실천해 온 만큼 마음은 더욱 따스하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대졸 선수의 찬밥 신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머리 굵은 대졸 선수보다 어린 고졸 유망주를 일찍 프로에 데려와 키우는 게 낫다는 인식 탓이다.

프로 지명을 못 받은 선수들이 뒤

는 대학 야구는 실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졸업을 앞두고 선수들은 프로 드래프트에서도 외면당하는 악순환을 겪는다.

KBO 사무국에 따르면, 2010년 이래 신인 드래프트에서 30~40명 선이던 대졸 선수 수는 2014년 5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곡선을 그려 지난해엔 21명으로 줄었다.

아예 대졸 선수를 한 명도 안 뽑은 구단도 나왔다.

대학 야구가 고사할 위기라는 여론을 반영해 KBO는 이사회에서 올해 신인 지명부터 대학 졸업 예정 선수를 1명 이상 의무지명하도록 의결했다.

이런 상황이라 이미 프로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대졸 선수들은 최근 대졸 후배들의 맹활약에 박수를 보낸다.

프로 구단의 한 관계자는 "구단은 나이 어린 고졸 선수들에게엔 제법 오랜 기간 기회를 주지만, 대졸 선수에게엔 3~4년을 줄 뿐"이라며 "이런 점을 대졸 선수들도 잘 알기에 적은 기회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관광대 이용수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정상'

제주관광대 클라이밍팀 소속 이용수(국제외국어통역학과·사진)가 전국 대회에서 정상에 등극했다.

이용수는 최근 광주 상무시민공원 상무인공암벽장에서 열린 제30회 광주광역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남자 일반부 속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다만, 동료인 신유관(관광레저스포츠계열)은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출신인 이용수는 지난해 전북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의 같은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상함에 따라 올해 역시 입상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체육회가 주최



하고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이 주관했고, 국내 압력 등반가 300여 명이 출전해 경합을 벌였다.

김성규 제주관광대 총장은 "레저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스포츠 욕구를 반영해 오토, 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팀을 운영·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스포츠클라이밍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 양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제주도선수단이 24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주도체육회

제주선수단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출발'

26개 종목 692명 출전... 25-28일 충북 일원

제주도선수단(26개 종목, 692명)이 180만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인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기 위해 격전지 충북으로 출발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생명중심 충북에서 하나되는 화합축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25일 개막돼, 28일까지 나흘간 충청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국 17개 시·도의 동호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회로서 순위 경쟁보다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된다.

파크골프, 볼링, 게이트볼, 궁도 등 어르신부에 출전하는 제주선수단 93

명은 개막식에 앞서 24일 항공편을 이용해 충북으로 이동했다.

제주선수단의 최고령은 국학기공 어르신부의 김재봉(88) 선수다. 김 선수는 "평소 도내 및 전국 국학기공 대회에 출전해 노의장을 과시할 만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필승의 의지를 밝혔다. 최연소는 검도 초등부 단체전에 출전하는 김민성(12) 어린이이다.

개회식은 26일 오후 5시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식전행사와 선수단 입장, 축하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제주도선수단 입장은 두 번째로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동호인 등 150명이 입장하며 '스포츠의 메카, 전지훈련 최적지 제주'를 홍보하는 다양한 입장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부평구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스포츠 한마당"이라며 "참가선수단의 안전은 물론 전국 종목별 동호인 간의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선수와 임원 등 전국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43개 종목으로 60개 경기장에서 분산·개최된다. 내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6월 10일 AFC서 복귀전

키 220cm의 종합격투기 선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39)이 다시 링에 오를 전망이다.

엔젤스파이팅챔피언십(AFC)은 최홍만이 오는 6월 10일 KBS 아레나 홀에서 열리는 'AFC12 - Hero of the Belt' 입식 스페셜 매치에 출전한다고 24일 밝혔다.

박호준 AFC 대표는 "강한 상대와 붙여 경기력을 끌어낼 것"이라며 "신장 190cm 이상의 전적 좋은 선수 4명을 물망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표는 "그중에는 현 AFC 무제한급 챔피언인 자코모 레모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 나이로 불혹인 최홍만은 국내에 종합격투기 열풍을 이끈 선구자다.

41대 천하장사 출신으로 모래판을 정복한 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 종합격투기 대회인 'K-1'에서 활약하며 12승 6패를 기록했다.

2007년 연말에 열린 '격투기 황제' 표도르 에멜리아넨코와의 대결은 평균 시청률 13.0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세계수영대회 공식 유니폼·시상 메달 공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니폼 패션쇼 리허설에서 공식 유니폼을 입은 모델들이 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Utd, 상주 상무전 연계 어린이 사생대회

27일 방문객 대상... 우수작 23개 선정 스포츠용품 시상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홈에서 열리는 상주 상무전과 연계, 어린이 사생대회를 연다.

제주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상주 상무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9라운드 홈경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생대회는 경기 당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주제는 축구를 소재로 한 모든 작품이며 초등학교생(현장점수 1000명)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행사는 축구장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백금탁기자

참가자는 물감 등 그리기 도구를 비롯해 붓자리 등 준비물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한다. 크레파스와 작품 용지는 기념품으로 현장에서 배부한다. 제출된 참가작은 반환되지 않는다.

대상 1명(50만원 상당 스포츠용품, 이하 생략), 최우수상 2명(30만원), 우수상 4명(20만원), 장려상 6명(10만원), 입상 10명(5만원)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시상식은 다음 휴경기 시 하프타임에 진행된다. 문의는 제주유나이티드 어린이 사생대회 사무국 064)748-5488.

백금탁기자



창간 30주년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 말산업을 선도하는 제주마주협회는 경마산업을 통해 '18년 레저세와 지방교육세(867억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 환원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社団法人 濟州馬主協會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TEL. (064)786-8595, 749-6909, FAX. (064)749-6803